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여자 대학생입니다. 알고 지내던 아저씨(오빠라 부릅니다)가 제 친구들의 눈빛과 행동이 나쁘다며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심한 상처를 입었는데 아저씨는 소소한 폭력사건으로 물어버리고 그 사실을 왜곡하고 감추려고만 합니다. 폭력에 대응해 보려고 하지만, 집안이 어려운 여자만 괴롭히고 몰래 불러 위협까지 가해 대응조차도 못하게 합니다. 노골적으로 "어린 여자는 갖고 놀기도 쉽다"고 말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 아저씨의 잘못된 정신을 고쳐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행위가 잘못했다는 깨달음을 줄 수 있고 친구들 마음에서 짐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지장경>이나 <금강경> 독송 후에 제 마음에 드는 진언들을 골라 읽어도 될까요?  
 독경도 한가지로만 해야 할지, 두루 섭렵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또 경전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읽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그냥 읽기만 해도 공덕이 된다는 말도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독경의 횟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읽은 독송을 기록해 가며 '몇 독 했다'고 알리면서 수행 생활하시는 분도 있던데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요?

**A** 진언은 허망(虛妄)하지 않은 언어로 법을 가르치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미묘(微妙)한 뜻과 신비(神秘)한 힘은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진언은 뜻을 번역

**A**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깊습니다. 우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마음에 드는 진언을 골라 읽기 등 독경 어찌 해야하나요?  
**상황에 맞는 진언 골라하고 경전 한두 권은 다독하세요**

까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 당사자인 친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함께 이루어주는 일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지 않고 범어(梵語) 그대로를 외웁니다. 진언은 자체의 뜻, 해석은 없는 것이라 하니 해석을 하지마시고 독송하시면 됩니다.

나서서 도움을 주고 싶다면 아저씨에게 피해를 본 다른 친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상황을 들어보고 친구들과 힘을 합쳐 같이 대응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요. 하지만 지금 내담자는 자신이 직접 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보다 좀 더 냉정하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듣고 이성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진언이 있습니다. 불전(佛敎)에 공양을 올릴 때는 예장 전 현좌진언, 정법계진언, 변식진언 등을 합니다. 예장 후 보회향진언을 하게 됩니다. 경전 독송을 할 때에는 공덕계를 하고 마치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직접 개입된 일이 아닌데도 내담자께서는 자신의 일처럼 분노하고, 배신감과 중요심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중요심은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왜 자신에게 이런 감정이 이는지에 대해서 관찰해 보시고 주변 어른들과 상의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진언수행자는 진언을 입으로만 외울 것이 아니고 그 마음으로 진언의 본질 속으로 녹아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진리 그 자체, 또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우주 자체와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만약 자신이 지금 친구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친한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경전을 습득(習得) 하되 즐겨 읽는 경전 한 두 권은 여러 번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몇 독했다'고 하는 것은 독경 중 나태해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수단일 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독경을 하시면서 마음으로 경전의 참뜻을 새기면서 독경을 해야 삼매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24시간 자비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상담팀 아하박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전화)

**Q** 불교에는 참회진언, 준제진언, 보회향진언 등 진언이 참 많은데요.

# 이곳에서 모든 아픔·번뇌 비워내세요

## 자비법당 탐방 서울대 병원 법당

'어? 내가 맞게 찾아 온 건가?' 서울대 병원법당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시골벽적인 소리가 먼저 반긴다. 잠시 '맞게 찾아온 것이 맞나' 하고 고민할 정도로 법당 안은 경건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이다. 그 소리에 원인을 자세히 찾아봤더니 보통 동네아줌마들이 수다를 떠는 소리였다.

서울대 병원법당 지도법사로 있는 은진 스님은 기자를 발견하면 "취재하러 온 기자분이시구나"라고 반색하던니 이내 "그런데 난 딱히 할 말은 없는데. 그냥 여기 계신 불자 분들이나 취재해 가요"라고 말했다.

순간 스님을 취재하러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그 속뜻을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스님은 법당안의 소음원인(?)이었던 불자들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다.

서울대 병원법당 은진 스님은 불교계에서 가장 오랜 경력을 자랑하며 병원포교에 매진해 왔다. 이미 병원에서 생활해 온지 20여년이 훌쩍 지나간 스님은 이제 웬만한 전문의 만큼이나 환자들의 상태에 대해 잘 안다. 은진 스님은 병원법당에서 불법을 전하는 스님들의 롤모델로서 활동 중이다.

하지만 정작 스님은 "자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병원 일을 할 수 있고, 지금도 계속 하는 것은 모두 다 불자들이 덕분"이라고 말한다. "서울대 병원 직원분들이야말로 현재 불교계의 법당들이 늘어나고 불교가 병원포교에 활동할 수 있게 된 원동력 이다"라고 설명했다.

"아니, 스님들도 아니고 병원직원들이 왜 불교법당이 늘어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거지?" 라는 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병원들이 환자와 더불어 병원직원들에게 불교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반면, 서울대 병원은 오래전부터 직원들의 신심이 남달랐던 곳이었다. 서울대 병원이 다른 병원과 차별화 되는 점은 '직원들의 신심이 유난히 깊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병원과 환자, 법당 일에 대한 참여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

1985년에 생겨난 서울대병원불자회원은 의사, 간호사, 일반직원 할 것 없이 신심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서울대 병원은 3차 병원이라는 특성상 의료진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일도 적지 않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직원들의 신심이 꺾이지 않은 점이 병원법당이 확산되는데 일조를 한 것이었다.

"제가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직원분들이 알아서 모든 것을 옆에서 도와주니까 오히려 법당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죠. 환자들 상담만 해줘도 하루가 빠듯한데 다른 일까지 한다면 더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모든 일을 착착 진행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직원분들은 서울대 병원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은진 스님은 주로 환자들의 상담과, 어린이 법회 및 의과대생들을 대상으로한 법회만 주로 맡고 있다. 스님은 "직원분들이 주인의식이 있어서 사



은진 스님과 서울대병원 직원분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연등을 만들고 차담을 나누고 있다.

## 은진 스님, 병원 법당 이끄는 스님들의 롤모델 서울대병원불자회 신심으로 병원법당 봉사 척척

법당이 남다르다"고 말했다. 법당 안에는 얼마남지 않은 봉축행사 준비로 분주했다. 법당 여기저기 완성된 연등들이 널려있었다. 법당 안에서 들리던 소음의 원인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법당에 들려 스님과 차를 마시며 연등을 만드는 불자들의 수다 소리였다.

"그냥 우리는 숙제 검사하러 온 거예요. 연등에 불일 꽃잎을 만들어야 하는데, 스님이 각자에게 숙제를 내주셨거든요."

정순혜(65)씨는 그러면서 자신이 다시 만들어야 할 꽃잎이 들은 봉투를 보인다. 유옥수(57)씨는 얘기를 나누던 중 "이제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서 올라가 봐야 할 것 같다"며 자리를 떴다. 병원내 직원 불자들은 이렇게 쉬는 시간을 이용해 법당에 들려 일할 거리를 찾는다. 불자들은 퇴직후에도 여전히 법당에 들려 스님을 찾아 뵙고 법당일손을 돕는다.

이날도 함께 연등을 만들던 불자들 중 절반이 퇴직한 이들이었다.

"점점 불자들이 저와 더불어 신심이 단단해져요. 퇴직 후에는 원찰로 돌아가 수행활동을 하지만, 퇴직 전에는 이곳 법당에서 주로 수행활동을 합니다. 이제는 딱히 말을 하지 않아도, 제 대신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며 법당 일들을 도와주죠. 이들을 보면서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가 무엇이고, 수행활동이 무엇인지 알게

했습니다." 현재 60여 명이 넘는 직원불자들은 거의 대부분 20년이 넘게 스님과 함께 법당 일을 하고 있다. 직원불자들은 매년 회비를 결어서 환자들에게 보시를 해왔다.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외래환자 4명에게 각각 50만원, 장기난치병 어린이 환자 4명에게 200만원씩 지원해 왔다.

"병원직원들은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먹고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항상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얻은 것을 다시 회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맙게도 여기 서울대 직원불자들은 그런 저의 말씀을 잘 헤아리고 환자들에게 매년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은진 스님은 "병원이라는 곳 자체가 몸이 아프고 병들어 찾게되는 곳"이라며 "그런 병원안의 법당을 찾는일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비워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병을 고치고 쉬었다가 가는 곳이 병원이라면 무언인가를 또 얻는 것이 때때리지만, 법당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몸이 아프면 마음의 병도 생기기 쉽다. 그런 환자들 부처님의 뜻을 오롯이 알고 병마와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진 스님과 직원불자들이야말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쳐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 귀장술12신궁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厄運)시록
-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 자녀액운(厄運) 차단법
- \* 취직시험·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 선거 후보당선 비술하는 여부 판단법
- \* 관청·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 소송·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 도주·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前世)투시법
- \* 前生(前世)의 夫婦(夫婦)인연 원집살이 現生(今生)에 미치는 현상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死後)환생(轉生) 귀신착해론
- \* 산소·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백초스님  
 상·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증

(02) 3667-4446  
 010-3813-4443